

5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국채부담 털고 반등..다우 1.25%↑	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음. 유가상승으로 지수관련 대형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하루전 증시 하락을 촉발했던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인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03.78포인트(1.25%) 상승한 8,403.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1포인트(1.2%) 오른 1,751.7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3.77포인트(1.54%) 상승한 906.83을 각각 나타냈음. 뉴욕증시는 오전만 해도 혼조세를 보였음. 4월 내구재주문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양호하게 발표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4월 신규주택판매와 1분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등 주택관련 지표들이 부담을 줬기 때문임. 그러나 오후들어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미국채 가격 상승)폭을 키우면서 경기회복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게 희석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음.
국제유가 6개월만에 65달러선 진입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6개월만에 처음으로 65달러선에 올라선 데 힘입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뉴욕증시 반등에 일조했음. 특히 30개 다우 지수 구성종목에 포함돼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인 쉘브론과 엑손모빌이 유가상승을 호재로 1~2% 안팎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63달러(2.6%) 상승한 65.08달러로 마감했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지만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밖으로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고 국제유가가 65달러선에 올라선 것은 작년 11월5일 65.44달러를 기록한 이후 6개월만임.
GM, 다음주 월요일 파산보호 신청- 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통신은 GM이 자구노력 데드라인인 다음주 월요일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GM의 주가는 하루종일 출렁인 끝에 2%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음. 블룸버그통신은 GM이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면 GM의 대부분의 자산을 새롭게 신설되는 `새로운 GM`에게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음. 이는 이른바 `굿(Good) GM`을 설립해 회사의 회생을 도모할 것이란 기존의 관측에 부합하는 내용임. 만약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엔 리먼 브러더스와 월드컴에 이어 미 역사상 3번째로 큰 파산을 기록하게 됨. 그러나 GM이 내달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하더라도 청산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며, GM은 파산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서 회사의 회생을 다시 추진하게 됨.

제목	주요 내용
4월 내구재주문·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기대보다 좋아`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이 상승세로 돌아섰음. 자동차와 방위재 주문이 늘면서 당초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음.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보다 1.9% 증가했고 전월 2.1% 감소(수정치) 이후 한달만에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음. 특히 이같은 상승폭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이후 가장 컸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에선 4월 내구재주문이 0.5%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었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했음.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컸음.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23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보다 1만 3,000건 감소한 62만 3,000건을 기록했다.
주택지표는 부담..모기지 연체율↑..신규주택 판매도 기대미흡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주택압류도 덩달아 급증했음. 미 모기지은행협회(MBA)가 발표한 올 1분기 모기지 연체율은 전분기 7.88%에서 9.12%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이에 따라 1분기 중 총 모기지의 1.37%에 대해 주택압류 조치가 취해졌음. 이는 전분기 1.0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지난 1분기 주택압류가 크게 늘면서 3월말 기준으로 차압된 주택들이 전체 모기지의 3.85%에 달했음. 작년 4분기엔 여러 주정부들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업체들이 주택차압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데 힘입어 주택차압이 주춤했기 때문에, 올 1분기에는 차압이 다시 늘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음.
유럽증시, 나홀만에 하락..美 주택지표 영향	유럽 다우존스 스톱스 600 지수는 1.2% 하락한 207.96으로 장을 마감.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4월 신규주택판매가 기대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 또 전날 미국 증시가 장막판 크게 밀리며 하락세로 마감한데 따른 키맞추기식 조정압력도 유럽증시에 가해졌음.
OPEC, 원유 생산량 현 수준 동결	알리 알-나يمي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OPEC 정기 총회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OPEC이 산유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이달초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20여년래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글로벌 원유수요가 1981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원유 생산동결에 영향을 미쳤음. 또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60달러선까지 크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OPEC으로선 감산의 명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
기업 체감경기 개선추세 지속..6월 BSI 전망치도 상승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6월 제조업 업황 기업실사지수(BSI) 전망치는 76으로 전월(71)에 비해 5포인트 상승. 올 1월 제조업 업황BSI가 44까지 추락한 이후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기업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체감경기가 모두 나아질 것으로 예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6월 BSI 전망치는 각각 81과 74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5포인트와 6포인트 개선됐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83과 72를 나타내 전월에 비해 8포인트와 4포인트 상승.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